

불법 스팸문자·피싱범죄 기승... 시민 불편 호소

오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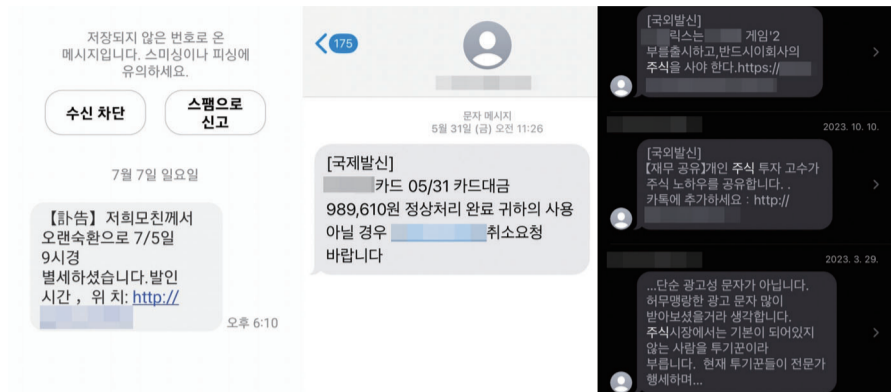
스팸문자 1인 평균 월 9통 수신
광주·전남 보이스피싱 연 800건↑
"경각심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은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눌러 스미싱을 당할 뻔했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피해를 겨우 면한 적도 있어요."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최모씨는 최근 불법 스팸문자 수신량이 급증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스팸문자·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불법 스팸·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라



흔히 볼 수 있는 스팸 문자.

독자 제공

면 휴대전화 사용자 월평균 스팸문자 수신량은 △2022년 하반기 5.01통 △2023년 상반기 5.23통 △2023년 하반기 8.91통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하반기 스팸문자 8.91건의 광고 유형별 건수는 △금융 5.09통 △도박 2.05통 △기타 1.77통으로 주식 리딩방 문자 등 금융 및 도박 관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영리 목적의 문

자는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모두 불법행위다.

최씨는 "주식 투자, 광고 등 일반 스팸 문자뿐만 아니라 부고·택배 알림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도 끊이지 않는다"며 "가족 등 일상과 밀접한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해 부지불식간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에 넋더리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스팸문자는 타인을 기망·공갈할

의도를 가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몸캠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광주의 경우 △2021년 624건 △2022년 335건 △2023년 367건, 전남은 △2021년 664건 △2022년 561건 △2023년 489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른다. 전남 지역 기준 최근 3년간 스미싱과 로맨스스캠도 각각 연평균 400여건과 100여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스팸문자·피싱 범죄 등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장은 "최근 기술 발달로 신종 범죄가 유행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방식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피해 대상과 수법도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국가기관에서는 피해가 속출하는 사기 수법 등을 파악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

를 전달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싱 범죄 등의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찰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등 사회 보호시스템을 이용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기 범죄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잠재적 사기 범죄 피해자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속출하는 불법 스팸·피싱 범죄에 대응해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7일 7·7 디도스(DDoS) 공격 발생에 따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12년 매년 7월 두번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제정해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농산물 513kg 폐기

농산물 2256건 대상 잔류농약 검사
열무 등 38건 부적합 판정·행정처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 총 513kg을 압류·폐기했다.

9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열무·숙갓·부추·파 등 23개 품목 38건(부적합률 1.7%)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열무(4건) △숙갓(3건) △부추(3건) △상추(3건) △

파(3건) △깻잎(2건)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살충제 포레이트(6건) △살균제 디니코나졸·프로사미미돈(3건) △제초제 펜디메탈린(3건) △살충제 뷰프로페진(3건) 등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달간 출하를 제한시켰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 이후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야간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메타버스 마술 흥연예방 공연

광주 치평중 1학년 학생들이 9일 교내 강당에서 열린 메타버스 마술 흥연예방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증강 현실과 마술 공연을 통해 담배의 유해물질과 흡연의 사회적 낙인호기자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기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